

기획

도시 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6> 대전시 중구 중촌동

얻을 것 없는 재개발사업
떠나고 싶은 마음에 기대만 높아져
25년 역사 '풀뿌리 마을 운동'
주민들 자생 노력, 장기적 관점으로



대전시 동구 대동 일대. 지난 1985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주민 간 마찰, 시공업체 불참 등으로 27년째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시설 개선보다는 교육·일자리·복지가 우선돼야



대전시 중구 중촌동 주민들과 대전 여성여민회 등이 건물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지난 2005년 문을 연 재활용 나눔 카페 '자작나무 숲'.



대전여민회가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미용기업 '보리와 밀' 내부 모습.

대전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임대아파트나 달동네 등의 '재생'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의 일이다.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국내외의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대전시 역시 이러한 '성과'에 고무돼 5년간 1006억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대전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단 1건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는 컸다. 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취약 동네 재생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선택과 집중'방식의 행정 지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당사로 선 '신진 정책'이었다. 4개 자치구 11개 동에서 174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복지정책과 결합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했다. 동구 관암 1·2동의 경우 36개 사업에 172억73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다기능 노인복지관 건립, 도로 정비 등 시설 설치사업이 18건(140억2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 공동체 복원 사업 등 프로그램 사업이 18건(32억4200만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같은 구 대동 역시 20개 사업에 68억8200만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마을 리더 만들기, 대동복지센터 설립, 저소득층 푸드마켓 운영 등 시설 설치사업이 13건(64억9100만원), 연탄은행 설치, 대동 마을 신문제작 등 프로그램 사업이 7건(3억9100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주민 수요를 감안해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난 2009년 11월 지역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만족도가 각각 69.7%, 94.0%를 보일 만큼 사업 성과도 높았다. 80.8%의 주민이 향후

무지개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미래 중점을 뒀다. 교육·일자리·복지 등 동네 주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로 대전시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 실과가 사라지고 새 시장은 '복지만두레'라는 새로운 사업을 내놓은 것이다. 당연히 무지개 프로젝트는 '잔반 신세'가 됐다. 복지만두레는 시설보다 복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보완 또는 보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정지돼 버렸다. 대전시청 운영식(52) 주무관은 "무지개프로젝트는 주민대표, 교수, 전문가, 공무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정리하고 도로·건축 등 각 실과에 이를 배분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현재는 무너져버렸으며,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창 복지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동구 대동은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다. 1985년부터 재개발이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고 역세권에 해당돼 개발일련만 높아지면서 땅값만 수직상승, 수익성은 더 낮아져 개발은 불가능해졌다. 문구점을 운영하

는 김모(66)씨는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기대만 높아져 큰 일"이라며 "사실 재개발하면 토지소유주나 건설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뿐 주민들은 얻을 것이 없는 데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전지역에서 25년의 역사를 가진 '풀뿌리 마을 운동'은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서 시작했다. 자생 여성단체인 대전여민회가 지역 여성운동의 하나로 도시관 '짜장' 개설, 동네 투어 프로그램 실시, 어린이 방학프로그램 실시, 마을 축제 개최 등 수많은 사업들을 여성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여민회는 모든 마을 만들기 사업 주체가 그러하듯 경제성과 공공성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수익사업으로 마을기업인 '보리와 밀'이라는 빵집을 내고 생활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길 방침이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대전여민회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하지만 이 마을 운동을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글=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전여민회 민양운 사무국장

"주민이 행복한 마을
주부 힘으로 만들겁니다"



자작나무 숲에 모인 대전여민회 회원들(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민양운 사무국장).

"여성들이야말로 동네를 바꿀 수 있는 핵심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중운동에서 여성운동으로, 다시 마을운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철저히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죠." 민양운(48)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중구 중촌동 주민들을 연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내놓은 사업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내 나눔장터 개장, 엄마 모임 만들기 등이었다.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장소를 건물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마련해 '자작나무 숲'이라는 명패를 붙였고, 동네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도서관 '짜장'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아 부지를 마련해 건물을 올렸다. "일할 수 있도록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서로 조율하고 협상하며, 합의된 전제로 사업을 해나가니 주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만드는 데 자치구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마을문고로 등록하면서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 전업 주부들이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래됐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민 국장은 말한다. "수익성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성과일 수도 있겠죠. 주민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 국장 등은 마을기업으로 올 초 뺏긴 '보리와 밀'을 개시했지만 직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건지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도 '돈' 버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주민들에게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은지 묻곤 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2012학년도 광신대학교(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페스티벌
가스펠 찬양대회 3rd.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교 은행관 3층 대예배실
2012학년도 광신대학교(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신대학교 57주년 (1954~2011)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